



오묘제를 통해 본 신라 김씨 왕실의 시조 인식 변화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he Progenitor of Silla Kim's Royal Family through Omyoje

저자 (Authors)	김나경 Kim, Na-gyung
출처 (Source)	신라사학보 , (52), 2021.8, 403-431 (29 pages) SILLASAHAKPO , (52), 2021.8, 403-431 (29 pages)
발행처 (Publisher)	신라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604639
APA Style	김나경 (2021). 오묘제를 통해 본 신라 김씨 왕실의 시조 인식 변화. 신라사학보 , (52), 403-431.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08 09:2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오묘제를 통해 본 신라 김씨 왕실의 시조 인식 변화

김 나 경*

I. 머리말	III. 태조대왕의 등장과 태조 인식
II. 시조대왕 미추의 부상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신라 김씨 왕실의 시조 인식을 오묘에 봉안된 태조대왕 및 시조대왕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신라에서는 고구려나 백제와 달리 여러 명의 시조가 등장하는데, 특히 김씨의 경우에는 왕위를 독점한 이후에 성씨의 시원인 알지가 아닌 시조들이 나타난다. 이는 신라 왕실의 시조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시조 인식은 그에 대한 제사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사 대상이 세대마다 교체되는 오묘제에 주목하였다.

중대부터 신라에는 유교적 예제인 오묘가 실시되는데, 신라 오묘제의 최고 수위에는 태조대왕과 시조대왕이 모셔진 바 있다. 먼저 혜공왕대 오묘 개편으로 봉안된 미추의 경우에는 김씨 최초로 왕위에 오른 시봉지군의 자격과 오랫동안 나라를 지켜온 공덕이라는 명분 하에 왕실의 시조로 부상하였다.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서는 오로지 미추만을 시조로 표현하였으며, 기존의 태조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조대왕이라는 신라만의 묘호로 미추를 모시게 된 것이다.

그리고 혜공왕대 이전 오묘에는 시조위에 태조대왕이 모셔졌는데, 문헌 기록에는 오묘의 태조대왕이 유일한 '태조'에 대한 흔적이다. 비록 태조는 「진흥왕 수순비」에 일찍부터 나타났지만 중대에 이르러서야 성한이라는 태조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다. 한편, 태조 성한은 소호금천씨 및 김일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신라와 당의 활

* 단국대학교 박사과정

주요 논저 : 2020, 「新羅 五廟制 受容의 意味」 『한국고대사연구』 97.

발한 교류로 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특히 소호금천씨는 왕실 이외의 가야계 유신 등의 김씨와도 연결된 것으로 보이다가 결국 알지 전승과 함께 김씨의 기원으로 고려까지 전래된다.

결국 알지는 김성의 연원으로서 일종의 시조신으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오묘가 아닌 별도의 제사에 모셔졌으며, 김씨 왕실의 조상신으로 태조대왕 및 시조대왕이 오묘와 관련된 기록에 남아있게 되었다. 처음 오묘제가 수용될 때에는 태종 무열왕의 공적을 기리기 위함과 동시에 기존의 태조 인식과 결합하여 태조대왕이 모셔졌다가 혜공왕대에 이르러 시봉지군인 미추가 새롭게 부상하였다. 그러다가 하대에 무열왕계가 아닌 나물왕계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다른 변동 없이 김씨 왕실의 시조격인 미추가 오묘에 계속 안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 김씨 왕실, 태조대왕, 시조대왕, 오묘, 태조 성한, 미추, 신라

I. 머리말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의 건국자는 혁거세, 고구려는 주몽, 백제는 온조라고 전한다. 고구려와 백제가 건국 이래로 건국자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한 것과 달리, 신라는 초기 三姓 집단이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다가 나물마립간대부터 김씨 집단이 왕위를 독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라에서는 건국자인 박혁거세를 존송하는 것과 별개로 김씨 왕실의 김씨 시조 인식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특히 김씨의 기원이라고 전해지는 알지를 비롯하여 나물마립간대 이후 문헌 기록과 금석문에서는 알지 이외의 김씨 시조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는 신라가 삼성 집단에서 김씨 집단의 권력 독점이라는 변화로 인하여 점차 고구려나 백제와 다른 시조 인식을 전래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일찍이 시조 인식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신라의 건국과 관련하여 삼성 집단의 연원을 추적하거나¹⁾ 오묘제를 중심으로 그 제도적 성격에 주목한 연

1) 신라 박·석·김씨 시조의 연원 및 제사에 대해 집중한 일련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기동, 1978, 「신라 태조 성한(星漢)의 문제와 흥덕왕릉비의 발견」 『대구사학』 17·18 ; 김창호, 1986, 「文武王陵碑에 보이는 新羅人の 祖上認識」 『한국사연구』 53 ; 최재석, 1986, 「新羅社會의 始祖의 概念」 『한국사연구』 53 ; 이문기, 1999, 「신라 김씨 왕실의 소

구 등이 진행되었다.²⁾ 그러나 시조 인식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상이나 후손들의 필요에 의해 변화하거나 환원하기도 하며, 전혀 새로운 관념의 시조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김씨 왕실의 시조 인식 변화 양상에 주목하여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³⁾ 특히 본고에서는 김씨 왕실의 시조 인식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신라 오묘의 최고 수위에 있었던 태조대왕 및 시조대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시조 인식은 필연적으로 그에 대한 제사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오묘에 봉안된 두 시조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신라인의 시조 관념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우선 II장에서 등장 시기와 관련 일화가 분명하게 남아있는 혜공왕대 시조대왕의 등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시조대왕은 미추를 말하는데, 주지하듯이 미추는 신라에서 김씨 최초로 왕위에 오른 인물로서 그가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혜공왕대에서야 왕실의 시조로 부상되는 과정을 살펴봄으

호금천씨 출자관념의 표방과 변화』 『역사교육논집』 23·24 ; 채미하, 2003, 「신라의 시조묘 제사」 『민속학연구』 12 ; 김병곤, 2009, 「古代 三國의 始祖觀 成立과 變遷」 『역사민속학』 29 ; 김기홍, 2011, 「신라 왕실 삼성(三姓)의 연원」 『한국고대사연구』 64 ; 서철원, 2012, 「朴·昔·金 시조신화의 대비를 통해 본 新羅 始祖 관념의 형성 단서」 『신라문화』 40 ; 김수미, 2019, 「『문무왕릉비』에 나타나는 북방(北方)과 출계 인식의 변화」 『역사학연구』 74 등.

2) 신라 오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최근 연구는 다음과 같다.

蔡美夏, 2000, 「新羅 惠恭王代 五廟制의 改定」 『한국사연구』 108 ; 채미하, 2001, 「新羅 下代의 五廟制」 『宗教研究』 25 ; 蔡美夏, 2002, 「新羅 宗廟制의 受容과 그 意味」 『역사학보』 176 ; 채미하, 2004, 「新羅의 五廟制 ‘始定’과 神文王權」 『白山學報』 70 ; 박남수, 2016, 「신라 문무대왕의 삼국통일과 宗廟制 정비」 『新羅史學報』 38 ; 강진원, 2017, 「신라 하대 종묘와 烈祖 元聖王」 『역사학보』 234 ; 이현주, 2018, 「신라 종묘제의 변천과 태후」 『史林』 66 ; 안주홍, 2019, 「신라 혜공왕대의 종묘제 개편과 그 함의」 『역사와 경계』 111 ; 강진원, 2020, 「신라 중대 宗廟制 운영과 五廟 始定」 『역사학보』 245 ; 김나경, 2020, 「新羅 五廟制 受容의 意味」 『한국고대사연구』 97 ; 박남수, 2020, 「신라 宗廟制의 정비와 운영-중국 종묘제의 변천 및 운영 원리와 관련하여-」 『新羅史學報』 49 ; 안주홍, 2020, 「신라 애장왕대의 종묘개편과 천자 지향」 『嶺南學』 73 등.

3) 알지가 김씨의 시원으로서 혁거세나 탈해와 다른 시조 인식을 유지한 세력 집단의 시조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본고의 주제인 오묘제의 태조대왕과 시조대왕은 왕실만의 시조로 기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오묘제의 역할과도 관련이 있는데 본고에서 ‘김씨 집단’은 왕실을 포함하고 박·석씨 집단과 대비되는 세력 집단을 말하며, ‘김씨 왕실’은 신라 왕위와 관련된 왕실 및 왕족만을 지칭하기로 한다.

로써 신라인의 시조 인식 변화 과정을 역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III장에서는 미추왕이 부상하기 이전인 오묘의 태조대왕과 관련하여 신라의 태조 인식에 대한 연원과 정체에 대해 나름대로 추정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김씨 왕실의 시조 인식 변화 양상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김씨 시조 인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오묘제의 기록이 남아있는 『삼국사기』와 시조와 관련된 일화가 전해지는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파편적으로나마 시조 인식이 언급된 금석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비문에서는 맨 첫머리에 주인공의 가계를 언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당대 신라인의 시조 인식을 추적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존하는 이 두 종류의 사료는 동일한 내용을 전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당대인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선 면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II. 시조대왕 미추의 부상

사실 김씨의 시조라고 한다면 경주 김씨의 시조라고 알려진 알지를 제일 먼저 떠올리기 쉽다. 알지는 삼성의 시조 중에서 가장 늦게 출현하며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실제로 신라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럼에도 그의 기이한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문헌으로 분명히 전해지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따르면 알지는 탈해이사금대 鷄林의 금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을 김이라고 하였으며, 박씨의 시조인 혁거세나 석씨의 시조인 탈해와 달리 왕위에 오르진 못했지만 계림이라는 국호의 연원이 되었다고 한다.⁴⁾ 이때 『삼국유사』에서는 알지의 탄생을 혁거세의 고사와 같다고 지적하였다.⁵⁾ 이는 알지의 전승

4)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탈해이사금 9년 3월. “九年 春三月 王夜聞金城西始林樹間有鷄鳴聲 遲明遣瓠公視之 有金色小橫掛樹枝 白雞鳴於其下 瓠公還告 王使人取橫開之 有小男兒在其中 姿容高偉 上喜謂左右曰 此豈非天遣我以令胤乎 乃收養之 及長 聰明多智略 乃名闕智 以其出於金橫 姓金氏 改始林名雞林 因以爲國號”.

5) 『삼국유사』 기이1, 김알지 탈해왕대. “永平 三年 庚申 八月四日 瓠公夜行月城西里見大光明於始林中 有紫雲從天垂地 雲中有黃金橫掛於樹枝光自橫出 亦有白雞鳴於樹下 以狀聞於王 駕幸其林開橫 有童男臥而即起 如赫居世之故事故因其言以闕智名之 闕智即鄉言小兒之稱也…土擇吉日冊位太子 後讓故婆婆不即王位 因金橫而出乃姓金氏”.

이 혁거세의 것처럼 신이한 탄생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처럼 알지는 건국자인 혁거세와 같은 신비한 출생, 즉 하늘에서 내려준 존재임과 동시에 김씨의 시작이자 국호의 기원으로서 면모를 전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알지는 언제부터 김씨의 시조로 등장하였을까? 김씨의 여러 시조 중 하나인 알지는 그중에서 시기상 가장 먼저 등장하며, 구체적으로 김씨의 시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를 김씨 최초의 시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자세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시조 인식이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과 관련 깊음이 분명하기에 알지는 혁거세나 탈해보다 늦은 시기에 김씨 시조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알지가 김씨의 시조로 등장한 시점은 미추왕이 즉위하기 전후의 김씨 집단이 부상하는 시기와 관련 있을 것이다.⁶⁾ 그러다가 미추왕의 즉위한 이후, 즉 김씨 집단이 왕위 교립에 합류한 후로 알지의 시조로서 전승이 유행하여 김씨 왕의 정통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알지가 누구와 혼인하였는지 등의 일반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다. 특히 알지는 신성한 탄생 이후에도 신라 왕실 집단과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이 유의된다. 탈해는 기존 박씨 집단의 사위 자격으로 즉위하였지만, 알지는 어디에서도 박씨나 석씨와 혼인했다는 기록이 전해지지 않는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혼인을 통한 집단과 집단의 결합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정치적 확대의 방법 중 하나이다. 다만 알지의 혼인이 전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가 실제로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알지는 그 전승에 모호함이 있지만, 같은 내용이 『삼국사기』뿐만 아니라 『삼국유사』에도 전하고 있는 만큼 김씨 집단의 권력 독점으로 인하여 성씨의 연원으로써 가장 널리 알려진 김씨의 시조라고 할 수 있겠다.⁷⁾

-
- 6) 김대문이 활동한 중대에 인식된 신라 초기 왕계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전하는 것과 일치(전덕재, 2018,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7~30쪽)하고 현재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신라 초기 왕계가 거의 같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삼국사기』 신라본기 미추왕 즉위년에 기록된 알지~미추 가계는 『삼국사기』의 저본인 『국사』가 편찬된 무렵에 이미 전승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7) 기존 연구에 따르면 신라에서 성씨가 사용된 것은 중고기 이상으로 소급할 수 없다고 한다(이순근, 1980, 「新羅時代 姓氏取得과 그 意味」 『한국사론』 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1~26쪽; 전덕재, 1996, 『新羅六部體制研究』, 一潮閣, 11~15쪽 등 참조). 그렇다면 알지가 김씨의 연원이 된 시점 역시 중고기 무렵으로 생각되는데, 이 시기는 이미 김씨 집단이 왕위 계승을 독점한 이후이기 때문에 김씨 집단에게도 혁거세나 탈해와 같은 기이한

이렇게 알지가 김씨의 시원으로 잘 알려진 한편, 신라 김씨 왕실의 입장에서 왕실의 시조를 말한다면 김씨로서 최초로 신라 왕위에 오른 미추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신라 초기 왕위 계승은 고구려나 백제와 달리 삼성 집단이 교대하였기 때문에 미추는 김씨 집단의 본격적인 신라 왕실 입성을 의미하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살펴보면 알지를 '始祖'라고 직접 언급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고, 다만 미추를 '始祖大王' 혹은 '金姓 始祖'라고 지칭한 기록만을 확인할 수 있다.⁸⁾ 그렇다면 신라에서 시조란 단순히 성씨를 얻은 조상만이 아니라 맨 처음의 조상이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⁹⁾ 이때 언제부터 김씨 왕실 차원에서 미추가 시조로 주

고사를 지닌 성씨 시조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결국 알지 전승이 유행하여 김씨 왕의 정통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었던 것이다.

- 8) 『삼국사기』에서 미추를 始祖大王 혹은 金姓 始祖로 지칭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원성왕 즉위년. “毀聖德大王 開聖大王二廟 以始祖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及祖興平大王·考明德大王爲五廟”, 애장왕 2년 2월. “謁始祖廟 別立太宗大王·文武大王二廟 以始祖大王及王高祖明德大王·曾祖元聖大王·皇祖惠忠大王·皇考昭聖大王爲五廟” :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 하. “夏四月 旋風坜起 自庾信墓 至始祖大王之陵 塵霧暗冥 不辨人物 守陵人聞其中若有哭泣悲嘆之聲 惠恭大王 聞之恐懼 遣大臣 致祭謝過 仍於鶯仙寺 納田三十結 以資冥福 是寺 庾信平麗·濟二國 所營立也” :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至第三十六代惠恭王 始定五廟 以味鄒王爲金姓始祖 以太宗大王·文武大王 平百濟·高句麗 有大功德 並爲世世不毀之宗 兼親廟二爲五廟”.

- 9) 현존하는 금석문 및 문헌기록들을 살펴보면 신라의 시조는 실질적으로 시조 혹은 태조로 명명하여 관련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시조는 일반적으로 맨 첫 번째 조상을 일컫는 말로, 지위 고하에 관계 없이 사용되어 오늘날에는 흔히 성씨의 기원이 되는 조상을 가리키고 있다. 반면에 태조는 중국의 유교적 예제에 따른 용어이자 廟號로, 일찍이 중국에서도 태조와 시조의 구분이 어려워 혼동하여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조는 후세의 고려 왕건이나 조선 이성계와 같이 주로 건국자에게 붙여지지만, 신라와 비슷한 시기인 당의 경우에는 1대조인 李淵이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인 李虎가 최초의 唐國公으로서 태조로 추존되었다. 결국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태조의 정의는 受命의 왕(천자국) 혹은 始奉의 군주(제후국)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조와 태조의 개념을 유의하여 신라 김씨 왕실에 적용해 보면 시조는 김성의 시원인 알지, 그리고 태조는 김씨로서 처음 왕위에 오른 미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시조와 태조 문제는 결코 해결되기에 만만치 않은데,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오묘제에서 일종의 廟號로 볼 수 있는 태조대왕에서 시조대왕의 변화라는 양상에 주목하였다.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중국과 신라의 시조 및 태조 개념 비교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별도의 논고를 통하여 수정·보완하고자 한다.

목되기 시작했으며, 어떤 배경에서 알지보다 미추가 강조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본래 시조에 대한 후손들의 인식은 그에 대한 제사를 통하여 가장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미추가 신라 왕실 제사에 등장한 가장 확실한 시기는 바로 오묘에 '시조대왕'으로 등장한 해공왕대이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잡지에 기록된 다음 기사를 살펴보자.

A-① 제36대 惠恭王에 이르러 五廟가 始定되었다. 昧鄒王을 金姓 始祖로 삼고, 太宗大王·文武大王을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여 큰 공덕이 있어 모두 '世世不毀之宗'으로 삼고, 親廟 둘을 더하여 五廟가 되었다.¹⁰⁾

위의 기록은 신라 종묘제 중 오묘와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통하여 해공왕대 오묘에 미추왕이 김씨 시조로 추존되어 오묘에 모셔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¹¹⁾ 또한 이때 미추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원성왕 원년 기사에 따르면 '始祖大王'이라는 묘호로 오묘에 봉안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오묘의 구성과 관련하여 신문왕 7년 기사와 비교해보면, "大臣을 祖廟에 보내 제사를 올리고 아뢰었다. '왕 아무개가 머리를 숙여 재배하고 삼가 太祖大王·眞智大王·文興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 영전에 아뢰입니다 ...'"라고 전한다. 이는 신라에 오묘제가 수용된 초기에는 오묘의 가장 윗자리에 태조대왕이 모셔졌지만 해공왕대 오묘의 시조 자리에는 태조대왕 대신 시조대왕으로 변경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미추는 해공왕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김씨 왕실의 시조로 인식되었던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공왕대 이전에 이미 미추가 김씨 왕실의 시조로 인식될 만한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사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미추의 즉위와 관련하여 김씨의 시조로서 면모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삼국사기』 권32, 잡지1, 제사. "至第三十六代惠恭王 始定五廟 以昧鄒王爲金姓始祖 以太宗大王文武大王 平百濟高句麗有大功德 並爲世世不毀之宗 兼親廟二爲五廟".

11) 해공왕대 오묘가 '始定'되었다는 것은 廟主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오묘에서 始封之君이 지나는 위상 및 공덕에 대하여 채미하,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해안, 170~171쪽, 177~181쪽이 참고된다.

- B-① 味鄒尼師今이 왕위에 올랐다. 성은 김씨이다. 어머니는 박씨로 갈문왕 伊柒의 딸이다. 왕비는 석씨 光明夫人으로 助賁王의 딸이다. 그의 선조 闕智는 계림에서 태어났는데 脫解王이 데려가 궁중에서 길러 후에 大輔로 삼았다. 알지는 勢漢을 낳고 세한은 阿道를 낳았으며, 아도는 首留를 낳고 수류는 郁甫를 낳았다. 그리고 옥보는 仇道를 낳았는데, 구도가 곧 미추의 아버지이다. 沾解에게 아들이 없어서 나라 사람들이 미추를 왕으로 세웠다. 이것이 김씨가 나라를 갖게 된 시초이다.¹²⁾
- B-② 제13대 末鄒尼叱今은 金闕智의 7세손이다. 대대로 현달하였고 또한 성덕이 있었으므로 沾解의 자리를 받아 비로소 왕위에 올랐다. [세주 : 지금 왕의 능을 속칭 始祖堂이라 한다. 대개 김씨로서 처음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후대 김씨 왕들이 모두 미추를 시조로 삼았으니 마땅하다.]¹³⁾

위와 같이 알지와 달리 미추는 김알지~구도로 내려오는 혈연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누구이며 부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B-①에서는 미추의 즉위를 김씨가 나라를 가지게 된 시초라고 전하고 있으며, B-②에서는 고려에 미추의 능을 ‘始祖堂’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신라 김씨 왕들이 미추를 ‘시조’로 여겼다고 전한다. 이렇게 미추를 일찍이 김씨 왕실의 시조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시조로서 위상이 널리 표방된 것은 한참 뒤인 해공왕대에서야 가능했던 듯하다.

사실 미추가 김씨 최초로 왕위에 오른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앞선 A-①를 보면 해공왕대에 갑자기 미추가 ‘金姓 始祖’가 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라 왕실은 후손들의 필요에 따라 알지 및 미추 등의 여러 시조가 등장하게 된다. 미추가 김씨 왕실의 시조로 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최초로 왕위에 오른 미추의 공적이 오묘와 결합하여 그 제사 목적에 부합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볼 수 있겠다.¹⁴⁾ 오묘제는 유교적 제의로써 국가제사로 수행되었지만, 동시에 국왕의 직계

12)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미추이사금 즉위년. “味鄒尼師今立 姓金 母朴氏 葛文王伊柒之女 妃昔氏光明夫人 助賁王之女 其先闕智出於雞林 脫解王得之 養於宮中 後拜爲大輔 闕智生勢漢 勢漢生阿道 阿道生首留 首留生郁甫 郁甫生仇道 仇道則味鄒之考也 沾解無子 國人立味鄒 此金氏有國之始也”.

13) 『삼국유사』 권1, 기이1, 미추왕 즉위군. “第十三末鄒尼叱今 金闕智七世孫 赫世紫纓仍有聖德 受禪于理解始登王位[今始稱王之陵爲始祖堂 蓋以金始始登王位 故後代金氏諸王皆以末鄒爲始祖]矣”.

14) 이때 해공왕대 오묘 시정이 진행되었던 배경과 관련하여 필자는 앞서 크게 왕실의 사정인 중대 중시조격인 태종무열왕의 오묘 휘철 위기(김나경, 2020, 앞의 논문, 127~131쪽)

조상을 모셨다는 점에서 김씨 왕실의 家廟 역할을 하였다. 혜공왕대 무렵이 되면 처음 오묘가 수용될 때보다 유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김씨 왕실에게 미추는 김씨 최초의 왕으로서 매력적인 시조가 아닐 수 없다. 결국 혜공왕대 오묘 시정 기사는 김씨 왕실의 始封之君인 미추의 공적을 유교적 의례와 결합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미추가 최고의 지위로 추존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혜공왕대 오묘에서 미추를 '시조대왕'이라 칭한 점이 눈에 띈다. 『禮記』 王制篇에 따르면, "천자는 7묘로, 三昭三穆과 太祖의 묘와 더불어 일곱이다. 제후는 5묘로, 二昭二穆과 太祖의 묘와 더불어 다섯이다."¹⁵⁾라고 하였다. 신라 초기 오묘는 중국의 '諸侯五廟'를 수용하여 '태조대왕'을 배향하였다가, 혜공왕대가 되면 유교적 예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김씨의 시봉지군인 미추를 태조대왕과 구별하여 신라만의 묘호인 '시조대왕'으로 오묘에 봉안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사료 A-①에서 혜공왕대라는 시점에 새롭게 미추왕을 김씨 시조로 하였다는 내용이 뚜렷하게 등장한다는 점과 『禮記』에 걸맞은 묘호인 태조대왕을 굳이 시조대왕으로 고칠 명분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태조대왕과 시조대왕은 각기 다른 인물을 지칭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신라에서는 이미 태조 또는 태조대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미추를 태조대왕으로 지칭한다면 후손들이 시조들을 구별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에 혜공왕의 입장에서는 미추를 기존의 태조대왕이 아닌 새로운 시조대왕이라는 묘호로 오묘에 봉안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오묘 이외에 신라에서 미추가 시조로 부상하게 된 배경과 관련된 기록으로는 『삼국유사』에 전하는 미추왕 죽엽군 설화가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2개의 일화를 연속적으로 전하는데, 여기서 간단히 내용을 소개하면 먼저 미추왕 다음으로 왕위에 즉위한 유례왕대에 伊西國 사람들이 금성을 공격하였는데 귀에 대나무 잎[竹葉]을 꽂은 병사들이 신라 군사와 힘을 합쳐 물리쳤다. 이때 대나무 잎을 꽂은 병사들이 바로 미추왕이 보낸 병사들이었기 때문에 신라인들은 나라를 지켜준 미추왕의 음덕을 기려 미추왕릉을 竹現陵이라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는 혜공왕대에 유신의 혼령이 미추왕릉에 들어가 자신의 후손들이

에 주목한 바 있다. 한편, 어린 나이에 즉위한 혜공왕의 왕권 강화와 관련된 정치적 의도도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15) 『禮記』 王制. "天子七廟 三昭三穆 與太祖之廟而七 諸侯五廟 二昭二穆 與太祖之廟而五".

무고를 입은 사실을 고하며 신라를 떠나려고 하자 미추왕의 훈령이 만류하여 결국 김유신의 훈령이 다시 자신의 무덤으로 되돌아갔다는 내용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에도 동일한 내용이 전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¹⁶⁾

사실 미추왕 죽엽군 설화는 오랫동안 신라를 지켜온 미추왕의 공적을 기리는 내용으로, 『삼국유사』에서는 미추의 공을 인정하여 그 결과로 미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전하고 있다.

C-① 미추의 훈령이 아니었다라면 김유신공의 노여움을 막지 못했을 것이다. [미추왕이 국가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라의 사람들이 그 덕을 기리며 三山과 함께 제사를 끊이지 않았고 서열을 五陵 위에 두고 大廟라고 불렀다.]¹⁷⁾

위의 사료 C-①에 따르면 나라 사람들이 미추의 덕을 기리며 三山과 함께 미추에 대한 제사를 끊이지 않았고, 그 서열을 五陵 위에 두고 大廟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와 함께 앞에서 살펴본 사료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미추왕릉은 始祖堂, 竹陵, 大陵¹⁸⁾ 등으로 불렸고 미추왕의 廟는 大廟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대나무 잎을 꺾은 병사들로 하여금 적국을 물리친 공적으로 붙여진 竹陵을 제외하면 결국 미추왕릉은 大陵 혹은 始祖堂이라고 한 것인데, 國祖인 혁거세나 김씨의 시원인 알지도 아닌 미추의릉이 이와 같은 명칭을 지녔다는

16)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 하에서는 「해공왕 15년 여름 4월, 회오리바람과 먼지가 일어나 유신의 묘에서부터 始祖大王의 능까지 이르렀는데, 먼지와 안개로 어두침침하여 사람과 물건을 분별할 수가 없었다. 능을 지키는 사람이 그 속에서 마치 소리내어 울면서 슬피 탄식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해공대왕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대신을 보내 제사를 지내고 사과하였으며, 이어 鸞仙寺에 밭 30結을 바쳐 명복을 빌도록 하였다. 이 절은 유신이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평정하고 지은 것이다.」라고 전한다. 해공왕 15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기가 『삼국유사』와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분명히 김부식 역시 해당 설화를 알고 있었지만 괴이하기 때문에 다만 김유신열전에 약술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김유신열전의 원전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덕재, 2020,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의 원전과 그 성격」 『사학연구』 139, 22~24쪽 참고.

17) 『삼국유사』 권1, 기이1, 미추왕 죽엽군. “非末鄒之靈無以遏金公之怒 王之護國不爲不大矣 是以邦人懷德與三山同祀而不墜 躋秩于五陵之上稱大廟云”.

18)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2, 미추이사금 23년 10월. “王薨 葬大陵”.

점은 유의될 법하다. 일찍이 중국에서 조상의 제시는 무덤 근처에서 사당을 세우고 수행되었고, 비슷한 시기 고구려나 금관가야의 경우에서도 무덤을 廟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C-①의 경우에도 미추왕릉인 大陵 근처에 그를 위한 大廟를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¹⁹⁾ 이때 大廟 혹은 太廟는 본래 시조의 묘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한다.²⁰⁾ 결국 모든 용례는 미추가 시조임을 전제로 붙여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²¹⁾

본래 '시조'는 신성성을 지녔으며 막연하게 선조로 가상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고, '태조'는 그 후손이 혈연인식을 확연하게 가지고 있는 조상을 의미한다고 한다.²²⁾ 이렇게 보았을 때 사실 미추는 김씨 왕실의 시조이며 동시에 태조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추를 직접적으로 태조라 칭한 사례는 찾기 힘들며,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는 김씨 중에서도 미추만을 시조라고 칭하고 있다. 이는 신라에서 미추가 분명히 태조가 아닌 시조로 인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오묘와 관련하여 태조대왕이 등장하기 때 문으로 신라에서 태조라는 용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다시 해공왕대 미추가 오묘에 봉안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사료 A-①를 자세히 살펴보면 해공왕대 오묘 개정으로 인하여 태종대왕 및 문무대왕의 공을 인정하여 世世不毀之宗으로 삼았다고 전한다. 본래 유교에서 종묘에 훼손되지 않고 영원성을 얻는 방법은 공덕을 쌓는 것이기 때문이다.²³⁾ 이때 미추 역시 김씨 최초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시봉지군으로서 역할

19) 중국에서는 일찍이 秦代부터 前漢까지 陵旁立廟 제도가 유행하였으며, 『삼국사기』에서 나타난 고구려왕의 장지명을 미루어 보거나 『삼국유사』 가락국기에서 수로왕의 무덤을 首露王廟라고 하였던 것이 참고될 수 있겠다.

20) 諸橋轍次, 1956, 『大漢和辭典』 3, 大修館書店, 444쪽. 大廟는 '宗廟'나 '太廟'라고 하며, 천자와 제후의 시조의 묘를 말한다. 처음에는 시조의 묘를 가리키다가 後漢 이후 다른 선조들을 합하여 제사지냈기 때문에 宗廟를 뜻하게 되었다고 한다(小島毅, 2004, 『東ツアの儒教と禮』, 山川出版社, 22쪽). 『삼국유사』에서는 문맥의 뜻을 보건대 종묘라는 뜻보다 시조묘를 가리키는 용례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21) 이와 함께 미추왕 죽엽군 설화에서 미추왕과 관련 없는 김유신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곳이 미추왕릉으로 나타나는 점은 미추가 시조로 추앙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196~196쪽)으로 볼 수 있다.

22) 이종태, 1999, 『新羅의 始祖와 太祖』 『백산학보』 52, 3~8쪽.

23) 박미라, 2015, 『宗廟에서 始祖神의 위상과 신격 - 祫, 禘祭祀의 首位문제를 중심으로 -』 『韓國思想과 文化』 77, 396쪽.

뿐만 아니라 미추왕 죽엽군 설화에 전하는 나라를 지킨 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교식 의례인 오묘는 김씨 집단에서 왕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주목된 것 중 하나이므로,²⁴⁾ 결국 당시 김씨 왕실이 미추를 유가적 합리주의에 따라 오묘에 추존하였던 배경 속에서 의도적으로 미추왕 설화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신라 김씨 왕실의 시조에 대한 인식 변화를 다시 정리해 보자. 신라 이 사금~마립간기에는 한 집단이 왕위를 독점하지 못하고 박씨에 이어 석씨가 왕위를 계승하기도 하였으며, 미추를 시작으로 김씨 집단 역시 왕위 계승에 참여하게 되었다. 김씨가 왕위를 계승하기 시작하면서 김씨 시조 역시 신라 왕실의 시조 중 하나로 인식되었는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김씨의 연원이라고 전하는 알지라고 할 수 있다. 알지의 등장으로 삼성 집단은 각자 혁거세, 탈해, 알지라는 성씨의 시조를 내세우게 되었다. 특히 김씨 집단의 경우에는 국조인 혁거세와 다른 성씨를 칭하고 있으므로 신이한 시조인 알지에 대한 존송을 통하여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김씨 집단에서 최초로 시조라고 인식한 인물은 성씨의 기원인 알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다가 김씨 왕의 왕위 계승이 안정된 후에는 김씨 집단 내에서 왕실을 분리·차별할 필요가 생겼을 터인데, 왕실만이 시조로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미추왕이었다. 미추는 김씨 최초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김씨 왕실의 시조 자격에 부합하며 이러한 인식은 일찍이 미추왕의 무덤을 大陵이라고 하였다는 기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신라에서 처음 오묘가 수용되었을 무렵에는 이미 태조가 태조대왕으로 오묘 최고의 수위에 안치되었기 때문에, 결국 김씨 왕실의 시조 미추 인식은 해공왕대 오묘의 구성을 개편하면서 그를 시조대왕으로 존송하면서 공식적으로 인지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알지가 금계에서 태어난 신이한 면모를 지닌 김씨 성을 아우르는 시조신으로서 기능했다고 한다면, 미추는 김씨 왕실의 시원이자 국가를 지킨 공덕이 있는 조상신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오묘제가 도입된 이후로 국가 최고의 제사인 오묘에 미추가 모셔진 점은 당시 그의 위상을 충분히 짐작할 만하겠다. 결국 미추를 김씨 왕실의 시조로 보는 인식은 미추왕 죽엽

24) 오묘제에서는 현왕의 직계 조상을 모심으로써 세대마다 친족 집단을 한정시켜 친족 외의 후손들을 제사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김나경, 2020, 앞의 글, 135~137쪽).

군 설화와 함께 고려까지 전해졌으며, 그 결과 『삼국유사』에서는 분명히 미추왕릉을 始祖堂이라고 하거나 미추를 김씨가 신라를 가지게 된 시작이라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시조대왕 미추가 등장하기 전까지 오묘의 최고 자리에 안치되었던 태조대왕의 정체는 궁극하지 않을 수 없다. 『삼국사기』에서는 다만 오묘의 태조대왕이라는 묘호만이 등장하며, 『삼국유사』에서는 태조에 대한 용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때 『삼국사기』에는 혜공왕대 오묘 개정을 통하여 태조대왕 대신 시조대왕이 안치되었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미추가 아닌 인물을 태조대왕 혹은 태조로 칭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태조대왕에 대하여 추적하는 작업을 거쳐야만 김씨 왕실의 시조 인식 변화 과정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장을 바꾸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III. 태조대왕의 등장과 태조 인식

문헌 기록 중에서 『삼국사기』의 신라본기 신문왕 7년 기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太祖大王’이 아래와 같이 등장한다.

D-① 대신을 祖廟에 보내 제사를 올리고 아뢰었다. “왕 아무개가 머리 숙여 재배하고 삼가 太祖大王·眞智大王·文興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 영전에 아뢰입니다 ….”²⁵⁾

위의 D-①은 신라에 오묘제가 수용된 초기 오묘의 구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사이다. 이에 따르면 신문왕대 신라 오묘의 최고 수위인 시조 자리에 태조대왕이 모셔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태조대왕이 누구인지 전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추적이 필요한데,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미추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태조대왕은 미추를 제외한 신라 김씨 왕실의 시조 중 한 명을 지칭하는 것인데, 위의 사료 외에는 『삼국사기』는 물론 『삼국유사』에서도 태조대왕에 대한 단서를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다만 금석문에서 ‘太祖’에 대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이제 오묘의 태조대왕의 정체를 밝히기 위하

25)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신문왕 7년 4월. “遣大臣於祖廟 致祭曰 王某稽首再拜 謹言 太祖大王·眞智大王·文興大王·太宗大王·文武大王之靈 ….”

여 먼저 태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시기적으로 금석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태조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E-① 짐은 왕위에 오르는 운수(歷數)가 자신에 이르러, 위로는 太祖의 기틀을 이어받아 왕위를 계승하여...²⁶⁾ 「마운령 진흥왕 순수비」

E-② 짐은 ... 太祖의 기틀을 이어받아 왕위를 계승하여...²⁷⁾ 「황초령 진흥왕 순수비」

위의 E-①과 E-②는 같은 내용 및 목적을 담은 「진흥왕 순수비」의 일부로, 568년(진흥왕 29)에 건립되었는데 여기에서 처음 태조라는 명칭을 발견할 수 있다. 비석에서는 진흥왕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태조의 기틀을 이어받았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태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가리키지 않고 다만 ‘태조’라는 호칭만을 사용하였다. 이때 태조가 등장하는 부분은 진흥왕이 신라의 왕위를 이어받은 자신의 정통성을 널리 알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아쉽게도 태조에 대한 언급만으로 그치기 때문에 당시 태조가 선조 중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중대 이전의 태조와 관련된 기록이 금석문에서만 발견되다가 중대 이후에는 『삼국사기』 신문왕 7년 기사뿐만 아니라 비문에서 ‘太祖 星漢’이라는 구체적인 인명이 등장하게 된다. 비문에서는 맨 첫머리에 주인공의 가계를 언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흥왕 순수비」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태조가 언급된 비문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F-① ... 그 신령스러운 근원은 멀리서부터 내려와 火官의 후예에 창성한 터전을 이었고, 높이 세워져 바야흐로 융성하니, 이로부터 □枝가 영이함을 담아낼 수 있었다. 稔侯로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후손이 7대를 전하여 ... 하였다. 15대조 星漢王은 그 바탕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²⁸⁾ 「문무왕릉비」

F-② 少皞는 □墟하여 별빛을 나누고 시퍼런 바다를 뛰어넘었으며, 金天은 ... 太祖 漢王은 천년의 □을 열고 ...²⁹⁾ 「김인문비」

26) 韓國古代史研究所, 1992a,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朕歷數當躬仰紹太祖之基纂承王位”.

27) 韓國古代史研究所, 1992a, 위의 책, “朕 ... 紹太祖之基纂承王位 ...”.

28) 韓國古代史研究所, 1992a, 위의 책, “... 君靈源自皐繼昌基於火官之后峻構方隆由是克□枝載生英異稔侯祭天之胤傳七葉以 ... 焉 十五代祖星漢王降質圓 ...”.

F-③ 太祖星漢³⁰⁾ 「홍덕왕릉 비문」

위와 같이 7세기가 되면 비문에서 태조를 ‘星漢’이라 칭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F-①에서 문무왕의 15대조로 ‘星漢王’이 등장하고,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문의 묘비인 F-②에서는 ‘太祖 漢王’이라 하여 F-①의 성한왕이 태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또한 9세기의 F-③를 통하여 이름의 글자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앞선 ‘태조=성한’ 인식이 신라 하대까지 남아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태조 성한은 『삼국사기』 신문왕 7년 기사와 함께 시기적으로 미루어 보아 오묘에 모셔진 태조대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관련 기록이 빈약하여 태조가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언제부터 태조라는 명칭이 신라에서 사용되었는지 자세히 알 순 없다. 다만 금석문은 당대인의 인식을 가장 잘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오묘에서 태조대왕이 분명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태조에 대해 나름대로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태조 성한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오묘의 태조대왕이라는 묘호와 관련하여 태조라는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자. 태조는 일반적으로 종묘에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조상에게 붙여진 묘호로, 신라에서는 태조와 병렬되는 태종이 등장하기도 하여 태조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듯하다. 신라에서 태종과 관련하여 다음 사료들이 주목된다.

G-① 왕이 돌아가셨다. 諡號를 武烈이라 하고, 永敬寺의 북쪽에 장사를 지냈으며, 太宗이라는 廟號를 올렸다. [당] 高宗이 부고를 듣고 洛城門에서 애도식을 거행하였다.³¹⁾

G-② 나라를 다스린 지 8년째인 龍朔 원년 辛酉에 세상을 떠나니 그 나이가 59세였고, 哀公寺 동쪽에 장사를 지내고 비를 세웠다. 왕은 유신과 함께 신비스러운 계책과 힘을 모아 三韓을 통일하여 사직에 큰 공을 이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廟號를 太宗이라 하였다.³²⁾

29) 韓國古代史研究所, 1992b,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少皞□墟分星于而超碧海金天命 … 太祖漢王啓千齡之□ …”.

30) 韓國古代史研究所, 1992b, 위의 책.

31)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8년 6월, “王薨 諡曰武烈 葬永敬寺北 上號太宗 高宗聞訃 舉哀於洛城門”.

32) 『삼국유사』 권1, 기이1, 태종춘추공, “御國八年 龍朔元年 辛酉 崩壽五十九歲 葬於哀公寺 東有碑 王與庾信神謀戮力一統三韓有大功於社稷 故廟號太宗”.

위 두 사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열왕 사후 문무왕은 그에게 太宗이라는 廟號를 올렸다고 한다. 문무왕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열왕에게 태종이라는 묘호를 상정한 이유는 통일의 대업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부왕을 높이 추앙하려는 의도 때문이며,³³⁾ 무열왕의 묘호가 정해짐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종묘인 오묘가 세워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태종은 그 공덕이 태조에 버금가기 때문에 붙여진 묘호이기 때문에 태조가 전제되었을 때야 비로소 등장할 수 있다.³⁴⁾ 요컨대 늦어도 무열왕이 죽고 문무왕이 태종이라는 묘호를 추증하는 시기와 성한이 최초로 언급되는 「문무왕릉비」가 건립되기 이전에 신라에서는 태조 및 태종이라는 명칭의 의미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³⁵⁾

한편, 이때 문무왕이 무열왕을 태종으로 추증하였던 점은 도리어 오묘의 최고 수위에 필연적으로 태조가 존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태조가 부재한 상황에서 태종은 그 묘호의 의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³⁶⁾ 특히 신문왕대가 신라에 오묘가 수용된 초기라는 시기적 상황을 유의한다면 태조대왕이 오묘에 봉안된 사실은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찌면 유일무이하게 태조로 기록된 성한이 오묘의 태조대왕으로 안치된 점도 오묘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신라 나름대로 기존의 태조 인식과 결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물론 태조가 처음 등장하는 진흥왕대의 그 의미가 신문왕대 오묘의 태조대왕과 온전히 같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신라에서 처음 언급된 태조는 왕과 관련하여 왕실의 혈통을 강조하는 의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특히 태조의 가계 인식을 전하는 금석문들의 주인공이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식자층임을 고

33) 황운룡, 1982, 「新羅太宗廟號의 紛糾始末」 『동국사학』 17, 12~14쪽.

34) 諸橋轍次, 1956, 앞의 책, 537쪽.

35) 본래 『禮記』 왕제편 및 『삼국사기』 신라본기 신문왕 7년 조묘 기사에서는 모두 ‘大祖’라고 기록되었다. 이와 같은 표현의 일치는 신라에서 『禮記』와 같은 중국적 의례를 인지와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36) 신라에 오묘제가 수용된 시기가 무열왕계 성립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초기 오묘의 구성은 무엇보다도 무열왕계만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한 예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혜공왕대에 이르러 태종 무열왕과 문무왕을 불휘지종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태조대왕 대신 시조대왕을 봉안하였던 점은 더 이상 태종이라는 묘호에 대한 당의 간섭이 없고 소호금천씨와 연결된 태조 성한보다 순수 왕실의 시조격인 미추가 더욱 매력적인 시조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려한다면, 금석문에서 태조는 김씨 왕실에 의하여 이전의 시조보다 혈연적인 연원을 강조하는 개념 정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진흥왕 순수비」에서는 7세기대 금석문과 달리 태조에 대한 별다른 가계의 언급이 없다는 점과 문헌 기록에서 중대 이전 태조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후 7세기대에 이르면 태조의 이름이나 가계 및 후손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앞서 언급된 「문무왕릉비」(682)와 「김인문비」 두 비문에 기록된 성한의 연원을 종합하면 ‘황제 현원-소호금천씨-투후(김일제)-성한’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진흥왕 순수비」에 태조가 관념적인 표현으로 등장하는 반면에 이제는 태조 이전의 시조를 언급하면서 신라의 태조 인식이 점차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당시 어떤 이유로 김씨 왕실은 태조인 성한의 연원을 굳이 중국의 인물들을 가계에 편입하였을까? 여기서는 전설상의 인물인 소호금천씨와의 관련과 흉노족 김일제와의 관련으로 나누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소호금천씨는 중국 전설상 시조인 黃帝의 아들로, 五帝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비록 전설상의 인물이지만 신라인의 연원을 최초로 중국과 연결한 것인데, 바로 이와 같은 인식은 김씨 왕실이 태조 성한을 중국과 연관하여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내세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태조의 개념은 막연한 조상인 시조와 달리 혈연적인 친연성을 강조하기 위한 호칭이기 때문에 태조 성한의 혈연적인 정통성을 전설상의 시조인 소호금천씨와 연결한 것이다.

이전까지 김씨 왕실은 김씨의 기원인 알지의 신성성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내세웠지만, 박씨와 석씨 집단을 압도한 후에는 김씨 집단에서 왕실을 분리할 필요가 생겼을 것이다. 이때 김씨 왕실은 왕실만의 차별성을 위하여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거나 김씨 왕족과 釋迦族을 연결하는 등 불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는데, 이 시기는 ‘태조’가 처음 등장하는 중고기 무렵과 일치한다. 그러나 김씨 왕실이 새롭게 수용한 불교를 이미 오랫동안 전해진 김씨 시조 알지 전승 속에 연결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김씨 왕실이 막연한 시조인 알지 신화를 넘어서 혈통적 연원과 관련하여 주목한 것이 바로 중국의 소호금천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⁷⁾

37) 사실 신라에서 태조 성한을 소호금천씨와 연결하는 가계 인식이 중고기에 바로 적용된 것으로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신라에서 소호금천씨와의 연원이 강조된 목적을 고려한다면 중고기에도 소호금천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최초로 태조가 등장한 진흥왕대 무렵에는 별다른 시도가 없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신라에서 소호금천씨는 왕실만이 아닌 범김씨 집단의 시조로서 역할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례들이 주목된다.

- H-① 신라 고사에는 “하늘이 金櫃를 내렸기 때문에 姓을 金氏로 삼았다.”라고 한다. 그 말이 괴이하여 믿을 수 없으나 臣이 역사를 편찬함에 있어서 이 말이 전해온 지 오래 되었으니 이를 없앨 수가 없었다. 그러나 또한 듣건대 신라인들은 스스로 小昊金天氏의 후손이라 하여 그런 까닭에 김씨로 姓을 삼았고. ...³⁸⁾
- H-② 김유신은 왕경인이다. [그의] 12세조 首露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 (신라인이 스스로 소호금천씨의 후예이기 때문에 姓을 金이라 한다고 하였다. 庚信碑에 또한 말하기를, “軒轅의 후예요, 少昊의 후손이다.”라고 하였다. 곧 南加耶 시조 수로와 신라는 同姓이다.³⁹⁾
- H-③ 太上天子께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시고 집안을 열어 드러냈으니, 이름하여 少昊氏金天氏라 한다. 이는 곧 우리 집안이 성씨를 갖게 된 世祖이다. 그 후에 유과가 갈라지고 갈래가 나뉘어져 번창하고 빛나 온천하에 만연하니 이미 그 수효가 많고도 많다. 元祖의 이름은 日磾인데 흉노의 조정(龍庭)에 몸담고 있다가 西漢에 귀순하여 무제 아래에서 벼슬하였다. 명예와 절개를 중히 여겼으므로 그를 발탁하여 侍中과 常侍에 임명하고 稔亭侯에 봉하였다. ...⁴⁰⁾ 「대당고김씨부인묘명」

먼저 H-①·②에서는 김씨의 연원과 관련하여 알지 전승과 또 다른 소호금천씨 전승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가 편찬된 고려시대까지 신라 김씨의 소호금천씨 전승이 함께 남아 있었던 것이다. 특히 김부식은 알지 전승이 괴이하여 믿을 수 없으나 전해진 지 오래되어 삭제할 수 없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알지 전승이 먼저 생겼고 그 이후에 생긴 소호금천씨 전승도 고려시대까지 전하여 내려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⁴¹⁾ 또한 H-②의 「김유신비」에서는

38)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6, 의자왕 시론. “新羅古事云 天降金櫃 故姓金氏 其言可怪而不可信 臣修史以其傳之舊 不得刪落其辭 然而又聞 新羅人自以小昊金天氏之後 故姓金氏 ...”.

39) 『삼국사기』 권41, 열전1, 김유신 상. “金庚信 王京人也 十二世祖首露 不知何許人也 ... 羅人自謂少昊金天氏之後 故姓金 庚信碑亦云 軒轅之裔 少昊之胤 則南加耶始祖首露 與新羅同姓也”.

40) 해석은 권덕영, 2009, 「大唐故金氏夫人墓銘」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54, 400~404쪽 재인용.

41) H-①에서 김부식은 세주로 소호금천씨 전승이 國子博士 薛因宣이 지은 「김유신비」(H-②와 다름)과 朴屠勿이 지었고 姚克一이 쓴 「三郎寺碑」에 보인다고 하나 현재에는 전해

김유신 역시 소호금천씨의 후예라고 자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신라인들이 소호금천씨를 시조로 삼은 배경에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찍이 무열왕 김춘추는 즉위하기 전인 648년 入唐하여 國學을 방문하여 釋奠과 講論을 참관하였고, 이듬해 신라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식 의관을 착용하였다.⁴²⁾ 또한 진덕왕 4년(650)에는 신라에서 중국의 연호인 永徽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⁴³⁾ 이에 따라 신라에서는 중국적 제도를 포함한 문화 전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보편적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이는 왜 소호금천씨 전승이 7세기대 사료에 나타나기 시작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아직 「진흥왕 순수비」 단계에서 신라는 소호금천씨 전승을 김씨와 연결할 수 있는 시대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또한 중대 무열왕계 왕실 성립 및 신라의 영역 확장에 따라 가야계 김씨를 포용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중국의 전설상 시조인 소호금천씨를 김씨의 시조로 연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무열왕의 뒤를 이은 문무왕은 진골인 무열왕과 가야계 김씨인 문명왕후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의 정통성 및 지지세력인 김유신계를 포섭하기 위하여 모계인 수로왕을 시조로 보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다.⁴⁴⁾ 그 결과로 문무왕대에 부계 시조인 태조대왕이 오묘에 모셔짐과 동시에 「가락국기」에 따르면 끊어졌던 모계 시조인 수로왕에 대한 제사가 다시 시행되었던 것이다.⁴⁵⁾ 그리하여 김씨 왕실은 소호금천씨라는 전설적인 시조를 표방하였고, 왕실과 친연이 있는 가야계 역시 소호의 후손임을 자처하다가 결국 김씨의 연원으로 소호

하지 않는다.

4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2년 및 3년 1월 기사 참고.

43)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진덕왕 4년. “是歲 始行中國永徽年號”. 이는 당 태종이 신라의 독자적인 연호 사용에 대한 불만(648)에도 지켜온 신라가 마침내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주목된다. 이로써 신라에서는 漢和정책이 이후로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44)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은 수로왕에 대해 ‘不知何許人也’이라 하여 「가락국기」에 보이는 시조로서 수로의 전승은 모두 생략하고 있다. 이는 『삼국유사』와 다른 전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전덕재, 2020, 앞의 글, 25쪽), 그럼에도 같은 가계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수로~유신으로 이어지는 가계 인식은 분명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다.

45) 『삼국유사』 권2, 기이2, 가락국기. “泊新羅第三十王法敏龍朔元年辛酉三月日有制曰 朕是伽耶國元君九代孫仇衡王降于當國也 所率來子世宗之子率友公之子庶古匪干之女文明皇后寔生我者 茲故元君於幼冲人乃爲十五代始祖也 所御國者已曾敗 所葬廟者今尙存 合于宗祧續乃祀事”.

금천씨 전승이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⁴⁶⁾ 이를 통하여 당시 시조 인식은 실존 인물이나 실제 혈연적인 조상에 한정되지 않고 후손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가계에 그 정통성을 보충할 수 있는 시조를 연결하였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인식은 H-③을 통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소호금천씨가 신라의 시조로 표현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H-③의 내용은 「대당고김씨부인묘명」(864)의 일부로, 집안의 가계에 대하여 소호금천씨(世祖)에서 일제(遠祖)로 내려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묘명의 대상이 8세기 후반에 당으로 귀화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원은 대략 7~8세기 정도 신라 왕실의 시조 인식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호금천씨와 신라 왕실과의 구체적인 계보에 대한 언급이 국내·외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고, 신라에서 태조와 달리 소호금천씨를 위한 별도의 제사가 시행되지 않음이 유의된다.⁴⁷⁾

한편, 「문무왕릉비」 및 「대당고김씨부인묘명」에서는 김씨 왕실과 稔侯 金日磾(기원전 134년 ~기원전 86년)의 연원이 기록되기도 하였다. 「문무왕릉비」에서는 문무왕의 시조로 일제와 태조 성한이, 「대당고김씨부인묘명」에서는 元祖로서 일제가 등장하였다. 『漢書』 김일제전에 따르면 김일제의 자는 翁叔이며, 본래 흉노 休屠王의 태자였다가 무제가 休屠王을 죽이자 漢에 끌려가 말을 기르는 일을 맡았다가 무제에 눈에 들어 車騎將軍까지 올랐던 인물이라고 한다.⁴⁸⁾

이때 일제는 7~8세기 신라 김씨의 시조로 전해면서도 앞선 소호금천씨와 달리 실존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일제는 실존 인물이라는 점에 소호금천씨와 다른 김씨 시조로서의 편입 배경이 존재하였을 터인데, 그렇다면 그가 중국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와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연구 성과에 따르면 김일제는 唐代에 만들어진 이민족의 묘지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일제는 이민족 출신이지만 중국에 투항하여 공을 세운 인물의 전형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⁴⁹⁾

46) 신라에서 소호금천씨 전승은 처음에는 왕실과 가까운 유력 김씨만이 시조로 표방할 수 있었다가, 점차 김유신계가 몰락하고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가면서 정치가 문란해져 김씨의 시원으로서 전해졌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47) 이미 같은 재당 신라인(「清河縣君金氏夫人墓誌銘」)이나 재당 고구려계 유민의 묘지명(「泉愍墓誌銘」)과의 비교를 통하여 김씨 왕실과 소호금천씨와의 연원이 모호함이 지적된 바 있다. 김기홍, 2011, 「신라 왕실 삼성(三姓)의 연원」 『한국고대사연구』 64, 333~338쪽.

48) 『漢書』 권68, 霍光·金日磾傳 참고.

49) 이현주, 2020, 「9세기 나당관계와 재당신라인 사회」 『역사와 경계』 115, 144쪽.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김일제가 등장한 두 비문을 다시 살펴보면, 먼저 「문무왕릉비」에서 일제는 신라 김씨 왕실과 마찬가지로 김씨를 칭하는 인물임과 동시에 이민족인 흉노 출신으로 漢에서 입신한 인물로서 주목된 것으로 보인다. 즉, 김일제 고사는 당나라에서 유행한 이민족의 입신 사례이기 때문에 실제로 김일제가 문무왕과 혈연적인 관계가 있어서 「문무왕릉비」에 기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稗侯라는 명칭으로 기록된 만큼 관념적으로 연결된 시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듯하다.⁵⁰⁾ 마찬가지로 「대당고김씨부인묘명」에서 김일제가 언급된 배경에도 김씨 부인이 당으로 귀화한 신라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당에서의 정착 과정 중에 주목되어 김일제와 같이 무사히 당에 안착하기를 바라는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중고기 이후 생긴 신라의 태조 인식은 김씨의 시원인 알지와 달리 왕실만의 차별성을 위하여 먼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교적 일찍 등장하는 두 시조는 후에 부상하는 미추와 달리 아직까지도 신비한 요소들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 알지는 김씨 시조들 중에서 유일하게 신이한 탄생 설화가 전해지고 있으며 또한 누구와 결혼했는지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태조는 성한왕, 한왕, 성한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오묘의 태조대왕을 제외하고는 사서에 태조 성한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의문이 남아있다.⁵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조 인식의 경우에는 주로 금석문에서 간단히 언급되다가 시간이 흘러 중국의 소호금천씨 및 김일제와 연결되는 혈통을 지닌 태조대왕으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7세기 말에 기록된 태조 성한은 소호금천씨 등의 혈원적 기원이 분명하며, 오묘에 안치된 태조대왕은 해공왕대까지 불체지종으로서의 조상신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하여 이른 시기인 「진흥왕 순수비」의 ‘태조’는 그에 대한 별다른 수식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비슷한 시기의 문헌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알지는 탄생 설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시조신으로서의 특징을 지닌 시

50) 김일제를 둘러싼 세간의 논의는 정훈식, 2019, 「金日磾 관련 논의의 현 단계와 새로운 이해의 방향」 『동양한문학회』 185~191쪽에서 정리된 바 있다.

51) 신라에서 김씨 왕실은 오랫동안 존속되어 관련 시조 인식에 대한 흔적이 비교적 풍부함에도 태조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무열왕계 성립 이전의 기록은 더욱 희박한데, 김씨뿐만 아니라 박씨나 석씨, 혹은 다른 성씨의 시조 인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조인 반면에 태조 성한은 아늑하게 먼 시조이기보다는 왕의 혈연적인 가계에 직접 언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⁵²⁾ 이는 두 시조가 후손들에게 어떻게 대우받았는지를 통하여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알지의 경우에는 김씨 집단이 부상했을 무렵부터 제사에 모셔졌을 가능성을 보전대 비록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神宮이라는 신라의 제사로 수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⁵³⁾ 결국 알지는 김씨의 시원으로 전해지지만 처음 오묘제를 수용한 무열왕계와 친연성이 멀어졌으며 태조라는 유교적 예제에 더욱 부합하는 시조로 인하여 오묘에는 안치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김씨가 최초로 왕위에 오른 지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신궁이 설치될 수 있었던 것처럼, 태조 역시 신라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직후에 그를 위한 제사가 수행되었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중대 김씨 왕실에 신궁의 주신이 교체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태조 인식이 점차 구체적으로 정리된 전후에야 오묘가 설치되고 태조와 함께 태종이 등장하였다고 보는 편이 가장 합리적일 듯하다. 다만 신궁제사가 처음 실시된 이후로 하대까지 빈번히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⁵⁴⁾ 신궁제사의 기능이 오묘제사로 교체되거나 알지가 새로운 시조인 태조로 대체되었다고 보기에 어렵다. 김씨의 기원에 대하여 알지 전승과 소호금천씨 전승이 모두 고려까

52) 이와 관련하여 「문무왕릉비」에서는 태조 성한의 바당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전하는데, 그가 문무왕의 15대조로 전하는 점을 미루어 보아 하늘에서 내려온 선조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닐지 생각된다.

53) 『삼국사기』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9년 기사에 따르면 시조가 탄생한 자리에 처음 신궁을 설치하였다(“九年 春二月 置神宮於奈乙 奈乙始祖初生之處也”)고 전하며, 잡지 제사조에는 지증왕이 시조가 탄강한 땅에 신궁을 창립하였다(“第二十二代智證主 於始祖誕降之地 奈乙 創立神宮 以享之”)고 한다. 이에 따라 신궁의 주신인 시조는 하늘에서 탄강하였다는 전승이 전해지는 인물이어야 하며, 『삼국사기』에서 신궁제사는 소지마립간대 실시된 이후로 하대까지 빈번히 시행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하대까지 시조로서 일정한 지위를 누리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신궁제사는 소지마립간대 이후인 중고기부터 하대까지 김씨 왕실에서 존승한 시조를 위해 시행되었으며, 배향 대상은 당시 왕실 세력의 동향을 고려한다면 김씨 시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듯하다.

54) 『삼국사기』에 기록된 신궁제사 시행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소지마립간 17년, 지증왕 3년, 법흥왕 3년, 진지왕 2년, 진평왕 2년, 선덕왕(善德王) 2년, 진덕왕 원년, 신문왕 2년, 효소왕 3년, 성덕왕 2년, 경덕왕 3년, 혜공왕 2년, 선덕왕(宣德王) 2년, 애장왕 3년, 헌덕왕 2년, 흥덕왕 2년, 현안왕 2년, 경문왕 2년·12년, 경애왕 원년.

지 전해지며, 성씨의 시원인 시조신으로서 역할과 김씨 왕실의 시조인 태조의 역할은 별개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태조 인식은 「진흥왕 순수비」에서 그 흔적이 처음 보인 이후 중대 김씨 왕실의 유교적 의례인 오묘에서 태조대왕으로 등장하는 만큼 상당 기간 동안 김씨 왕실에서 시조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태조 인식은 어떠한 시조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비록 중고기의 태조 인식은 사료 부족으로 인하여 자세히 알 순 없지만, 본래 태조는 왕위 계승의 정통성 및 정당성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강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중대 김씨 왕실이 태조를 보다 주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중대에 이르러 성골에서 진골로 왕실 가계가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토 확장에 따른 국제적 상황 및 국내 정치적 동향 모두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이다. 예컨대 무열왕인 김춘추의 경우에는 즉위 전에 입당 경험이 있었던 만큼, 중대 김씨 왕실이 기존 태조 인식에 덧붙여 가계에 소호금천씨 등의 중국 시조를 연결하거나 유교적 의례인 오묘를 구성하였던 일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소호금천씨가 유독 김씨 왕실만이 아니라 김유신 등의 가야계는 물론 일반적인 김씨 성의 연원으로 전해지는 일도 무열왕계 성립 및 당과의 교류라는 당시 시대적 배경이 반영된 결과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해공왕대가 되면 오묘의 구성에서 태조대왕이 시조대왕으로 바뀌는데 이는 김씨 왕실의 시조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추는 김씨 왕실의 시봉지군으로서 공적이 주목되어 미추왕 죽엽군 설화와 함께 오묘에 시조대왕으로 모셔지게 되었다. 이는 공식적으로 신라 김씨 왕실이 미추를 불천위의 시조로 선포한 것이다.⁵⁵⁾ 이로써 알지라는 시조신과 별개로 김씨 왕실은 오묘에 태조대왕 및 시조대왕이라는 두 조상신을 모시게 되었다. 태조대왕은 태종과 함께 등장하여 묘호라는 유교적 예제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태조 인식과 결합할 수 있어 초기 오묘에 봉안될 수 있었고, 시조대왕은 시봉지군으로서 무열왕계와 非무열왕계 모두를 포괄하는 왕실의 시조로 인식될

55) 한편으로 오묘에서 태조대왕 대신 시조대왕이 모셔졌던 배경에는 태조에 대한 소호금천씨 전승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라에서 김유신의 후손들이 점차 영향력을 상실했던 점 등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호금천씨나 김일제와 연결된 태조보다 순수하게 김씨 왕실의 시조격인 미추가 오묘에 부합하다는 명분은 충분히 납득될 만한 사유였을 것으로 보인다.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시조대왕 미추는 해공왕대 처음 오묘에 시조대왕으로 봉안된 이후에 나물왕계인 애장왕대 시행된 오묘 개편에서도 그 지위가 유지될 수 있었다.⁵⁶⁾

그러나 한번 생겨난 시조 인식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김씨의 기원과 관련하여 알지 전승만 아니라 소호금천씨 전승도 함께 전래되었음은 앞서 확인한 바 있다.⁵⁷⁾ 또한 태조대왕은 비록 해공왕대에 오묘에서 제외되었지만, 태조 성한 인식은 「흥덕왕릉 비문」을 통하여 신라 하대에까지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⁵⁸⁾ 적어도 고려 초기까지 김씨 시조와 관련하여 태조 성한 인식이 전승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 기록이 발견된다.

- I-① 대사의 法諱는 利嚴이며 속세의 성은 金氏이고, 그 선조는 鷄林人이다. 그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니 실로 星漢의 후예이다. ...⁵⁹⁾ 「광조사 진철대사보월승공탑비」
- I-② □運은 속세의 성이 김씨이며 계림인이다. 그 선조는 聖韓으로부터 내려와 나물에서 크게 일어났다.⁶⁰⁾ 「비로사 진공대사보법탑비」

위의 두 기록은 고려시대 초기에 세워진 탑비에서 발견된 성한에 대한 내용으로, 바로 탑비의 주인공인 두 승려가 속세에 김씨 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고려시대의 것이기 때문에 비록 여기서 성한이 태조로 지칭되지는 않았지만, 앞

56)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 10, 애장왕 2년 2월. “別立太宗大王·文武大王二廟 以始祖大王及王高祖明德大王·曾祖元聖大王·皇祖惠忠大王·皇考昭聖大王爲五廟”.

57) 특히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은 사론을 통하여 “이는 신라 國子博士 薛因宣이 지은 金庾信碑과 朴居勿이 지었고 姚克一이 쓴 三郎寺碑文에 보인다.”라고 하여 소호금천씨 전승이 신라 금석문에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두 비문은 모두 현재에 전하지 않는다. 『삼국사기』 권28, 백제본기 6, 의자왕 사론 참고.

58) 태조 성한이 금석문에서만 등장하는 이유와 태조대왕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은 시조대왕 미추가 부상하는 신라 하대 혹은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가 편찬된 고려시대에 의도적으로 태조 인식을 정리하였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은 추후 보다 세밀하고 정직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59) 한국역사연구회, 1996,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上, 해안, 31쪽, “大師法諱利嚴 俗姓金氏 其先鷄林人也 考其國史 實星漢之苗”.

60) 한국역사연구회, 1996, 위의 책, 60쪽, “□運 俗姓金氏 鷄林人也 其先降自聖韓 興於那勿”.

선 금석문들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선조로 성한을 언급하고 있기에 이때 성한은 태조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비록 문헌 기록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고려 초기까지도 실제로 태조 성한 인식이 전해져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본문에서는 신라 김씨 왕실의 시조 인식 변화 양상을 오묘의 시조대왕과 태조 대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신라에서는 건국 초기 박·석·김씨가 교대로 왕위에 올랐고 이에 따라 각기 혁거세·탈해·알지를 성씨의 기원으로 내세우게 되었다. 그러다가 김씨 집단이 왕위를 독점한 이후에는 건국자인 혁거세와 별개로 왕실의 신성성 및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하여 김씨 시조를 향한 존숭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본문에서는 성씨 시조인 알지 이외에 김씨 왕실에서 표방한 김씨 시조들에 관하여 그 등장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앞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신라 김씨 시조로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김성의 연원인 알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알지는 실제로 왕위에 오르진 못했으며, 다만 하늘에서 내려온 시조였기 때문에 신궁 제사를 통하여 시조신으로서 존숭되었다. 이에 자연스럽게 주목된 인물은 김씨로서 최초로 왕위에 오른 미추이다. 신라에서 맨 처음 김씨를 칭하여 왕위에 오른 미추의 업적은 김씨 왕실의 입장에서 그를 왕실의 시조(始封之君)로 충분히 내세울 만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럼에도 미추가 공식적으로 김씨 왕실의 시조로 기능하는 것은 신라에서 오묘제가 실시된 지 제법 시일이 지난 혜공왕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했다.

결과적으로 미추는 오묘제가 실시된 직후가 아닌 혜공왕대 전면적인 오묘 개편을 통하여 시조대왕으로서 존숭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시조대왕 미추의 부상 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삼국유사』 미추왕 죽영군 설화를 통해 엿볼 수 있듯이 오랫동안 신라를 수호해온 공적과 유교적 예제인 오묘와 관련하여 김씨 왕실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위업이 결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서 김씨 왕실의 ‘시조’를 지칭한 용례는 미추에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그의 무덤을 대릉 혹은 시조릉이라 불렀다고 전해진 점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한편, 해공왕대 이전에 오묘에는 불천위에 태조대왕이 자리하여 주목되었다. 태조대왕은 신라에서 중국적 예제를 수용·적용하는 초기 단계에서 시조 미추 대신에 오묘 구성에 포함될 수 있었다. 현존하는 자료 중 신라에서 가장 먼저 태조가 등장하는 시기는 「진흥왕 순수비」 단계이다. 그러나 이때 태조는 별다른 묘사 없이 진흥왕의 선조로 지칭되는데, 이후 7세기가 되면 여러 금석문에서 태조 성한이라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특히 7세기대 태조 성한을 중국 전설상의 시조인 소호금천씨와의 연결함으로써 김씨 혈통의 신성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이러한 소호금천씨 전승은 왕실뿐만 아니라 김유신 등의 김씨를 포함하여 전해지다가 이후 고려시대에는 알지가 아닌 김성의 또 다른 전승으로 남아 있게 된다. 또한 「문무왕릉비」에서 태조 성한은 흥노족 출신인 김일제와의 연관성도 나타나는데, 이는 문무왕과 실제 혈연적인 관계라기보다는 투후라는 상징적인 조상으로서 주목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진흥왕대 태조 인식은 7세기를 거쳐 소호금천씨 등과의 연결이 추가됨으로써 태조 성한 인식이 오묘제의 태조대왕으로 완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 특히 무열왕을 태종으로 추송하는 과정 속에서 오묘의 태조대왕은 필수적인 존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비록 해공왕대 오묘 개정으로 인하여 태조대왕은 문헌 기록에서 사라졌지만 태조 성한 인식은 고려 금석문에 남아 전해질 수 있었다. 이는 신라에서 김씨 왕실의 필요에 따라 알지 대신 오묘의 태조 성한 혹은 미추왕을 내세움으로써 김씨 왕실만의 차별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신라의 시조 인식 변화는 여러 전승과 함께 자연스럽게 시조를 위한 제사의 흔적을 통하여 추적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신라 김씨 왕실의 시조 인식 변화 양상을 오묘의 시조대왕 미추와 태조대왕 및 태조 성한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이를 통하여 신라 김씨 왕실에서 고구려나 백제, 박씨 집단 및 석씨 집단과 달리 후손들의 사정에 따라 여러 명의 시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단편적으로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 본문에서는 미추가 어떻게 시조대왕으로 부상하였는지, 그리고 ‘태조-태조 성한-태조대왕’으로 완성된 태조 인식과 더불어 알지 전승과 함께 전해진 소호금천씨 전승에 대해 나름대로 재검토를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태조 성한의 정체에 관하여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하였는데, 이는 추후 별도의 논고를 기약하며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사료 및 자료

- 『禮記』, 『漢書』, 『三國史記』, 『三國遺事』
韓國古代史研究所, 1992a,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2,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韓國古代史研究所, 1992b,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한국역사연구회, 1996, 『譯註 羅末麗初金石文』 上, 혜안.

2. 단행본 및 저서

-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전덕재, 2018,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전덕재, 1996, 『新羅六部體制研究』, 一潮閣.
채미하, 2008, 『신라 국가제사와 왕권』, 혜안.
諸橋轍次, 1956, 『大漢和辭典』 3, 大修館書店.
小島毅, 2004, 『東ツアの儒教と禮』, 山川出版社.

3. 논문

- 권덕영, 2009, 「〈大唐故金氏夫人墓銘〉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54.
김기홍, 2011, 「신라 왕실 삼성(三姓)의 연원」 『한국고대사연구』 64.
김나경, 2020, 「新羅 五廟制 受容의 意味」 『한국고대사연구』 97.
박미라, 2015, 「宗廟에서 始祖神의 위상과 신격－ 裕·禘祭祀의 首位문제를 중심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77.
이순근, 1980, 「新羅時代 姓氏取得과 그 意味」 『한국사론』 6,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이종태, 1999, 「新羅의 始祖와 太祖」 『백산학보』 52.
이현주, 2020, 「9세기 나당관계와 재당신라인 사회」 『역사와 경계』 115.
전덕재, 2020, 「『삼국사기』 김유신열전의 원전과 그 성격」 『사학연구』 139.
정훈식, 2019, 「金日磾 관련 논의의 현 단계와 새로운 이해의 방향」 『동양한문학회』.
황운룡, 1982, 「新羅太宗廟號의 紛糾始末」 『동국사학』 17.

ABSTRACT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he Progenitor of Silla Kim's Royal Family through Omyoje

Kim, Na-gy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the progenitor of the Silla Kim's royal family, focusing on King Taejo the great(太祖大王) and King Sijo the Great(始祖大王) enshrined in the Omyo(五廟). The Confucian example of Omyo was implemented in Silla from the Middle Ages. King Michu became the founder of the Kim royal family by King Hyeogong because he was the first Kim king and protected Silla for a long time. The Samguksaki(『三國史記』) and The Samgukyusa(『三國遺事』) stated that only King Michu was the founder(始祖). King Michu was named King Sijo the great, who only used Silla to distinguish from King Taejo. Before King Hyeogong, there was King Taejo the great in Omyo, which was recorded only in the Samguksaki(『三國史記』). King Taejo first appeared in King Jinheung's Sunsubi Monument(「眞興王巡狩碑」), at which time it was unknown who King Taejo was. It was not until the 7th century that the name Taejo Seonghan appeared intact in Silla. Taejo Seonghan appeared as King Taejo the great of Omyo, who was recorded as descendants of the Soho Geumcheon(少昊金天氏) and Kim Ilje. This is presumed to be the result of active exchanges between Silla and Tang(唐) at that time. In the end, Kim Al-ji was a kind of Progenitor God, so he was enshrined at a memorial service other than the Omyo. On the other hand, records of King Taejo the great and King Sijo the great remained as Ancestor God of the Kim's royal family of Silla.

Key Words : Kim's royal family, King Taejo the great, King Sijo the Great, Omyo,
Taejo Seonghan, King Michu, Silla

논문 투고일 : 2021. 7. 1. 심사완료일 : 2021. 7. 31. 게재확정일 : 2021. 8. 6.